

# 당뇨병이란 어떤 병인가? (1)

## • 당뇨와 당뇨병을 구별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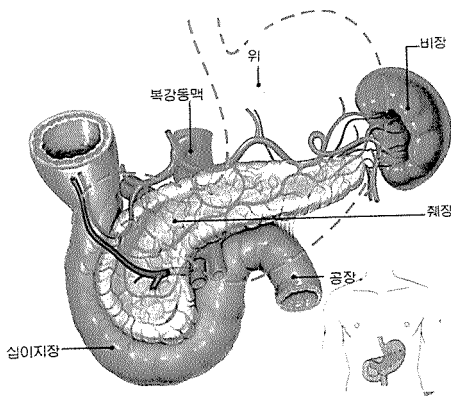
“당뇨병”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것은, 소변에 당이 나오는 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뇨병이라고 해도 소변에 당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한 소변에서 당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당뇨병은 아닌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당뇨와 당뇨병은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소변을 통해 배설되는 당분은 포도당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물론 신장을 통과해서 소변으로 배설되는 것이다. 소변 중의 포도당은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포도당이다. 이것을 간단히 혈당이라고 부른다.

◎ 누구에게나 혈당이 있다. 보통 그 농도는 체내에서 쓰일 때 100mg/dl 정도이다. 즉, ml(CC)의 혈액 중에 100mg의 포도당이 용해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정도의 포도당의 농도로는 절대로 소변으로 배설되지 않으며, 혈당이 170mg/dl 이상의 농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소변에 포도당이 섞여 나오게 되는 것이다.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설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경계를 기초로 해서 혈당의 농도를, 신장에 있어서의 포도당 배설 여부를 알 수 있다.

이것은 단지 당을 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 당을 잴 때 평균치는 혈당 170mg/dl이다. 그러므로 소변에 포도당이 관찰되면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혈당이 170mg/dl를 초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정상인의 경



우에는 혈당이 170mg/dl를 초과해서 높아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변에서는 포도당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문제는 이 척도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어느정도 낮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 나중에 확인되었지만 당뇨병이 되는 것도 혈당을 낮추는 힘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식사를 조절해도 상당히 높게 혈당이 올라가는 것이다.

◎ 보통 사람은, 혈당이 약간이라도 올라가면 반드시 여분의 힘이 움직여서 곧 정상 수치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라도 수치의 편차가 적게 내려가더라도 혈당이 당뇨병의 경우보다 올라가지 않았으면 약간 진하게 소변에 포도당이 누출되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상태를 신성(腎性)당뇨라고 한다. 이것은 당뇨병은 아니다.

◎ 당뇨병과 신성(腎性)당뇨의 구별을 분명히 기억해 두도록 한다. 72